ECONOMIC FOCUS

2026. 3. 3.

Global Macro Team

정성태 Senior Economist
sungtai.chung @samsung.com

금종호 Economist
jongho.keum@samsung.com

리서치센터 리포트
바로가기

한국 2월 수출

예상 상회; 지정학 리스크의 한국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

- 2월 한국 수출 당사 예상을 상회. 글로벌 AI 투자 확대로 반도체 수출(160.8%)은 조업일수 감소와 전통적인 비수기 상황에도 증가율이 확대되는 양상
- 반도체 수출 급증으로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. 다만, 경기 민감 품목은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부정적인 영향 확대 예상

'26년 2월 한국 수출은 전년 대비 29.9%(674.5억 달러)로 당사 전망(24.5%)과 금융시장 예상(25.1%, Bloomberg 기준, 이하 전년 대비)을 상회했다. 아울러, 일평균 수출은 설날 명절 연휴로 조업일수가 2일 감소한 영향으로 49.3%를 기록한 가운데, 설날 명절 시점 변화를 감안한 1~2월 평균 수출은 31.3%로 당사 전망의 궤적('26년 연간 25%)을 소폭 상회하고 있다. 다만, 2월 반도체(SSD 포함) 수출 증가율은 165.4%로 크게 높아졌으나, 자동차(-20.8%), 화학(-15.4%) 등의 부진으로 반도체 외 품목의 수출은 -5.1%에 그쳤다(1~2월 평균은 4.2%).

한편,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제한적일 전망이다. 이는 반도체의 수출 비중이 40%에 이르고, AI 인프라 투자의 특성(미국 중심과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)을 감안한 결과이다. 다만, 전쟁의 지속기간과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여부에 따라 자동차, 화학 등 경기에 민감한 품목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좌우될 전망이다. 만약 지정학적 불안이 4주 이내 단기에 해소될 경우,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.

2월 한국 수출의 세 가지 특징

첫째, 반도체(160.8%)를 비롯한 SSD(288.7%), 무선통신기기(12.7%) 등 주요 IT 제품의 수출이 (+)를 기록했다. 특히, 2월 반도체 수출은 HBM 수요와 DDR4 등 범용 반도체의 가격 급등에 힘입어, 조업일수 감소 및 전통적인 비수기임에도 증가율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('25년 12월 43.1% → 1월 102.7% → 2월 160.8%). 이러한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, '26년 한국 수출 전망은 추가적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.

둘째, IT를 제외한 품목은 명절의 계절적인 영향(-10% 내외)을 감안하면, 바이오 헬스(7.1%), 화장품(3.5%) 등은 양호했으나, 자동차(-20.8%), 일반기계(-16.3%), 석유화학(-15.4%) 등은 부진을 지속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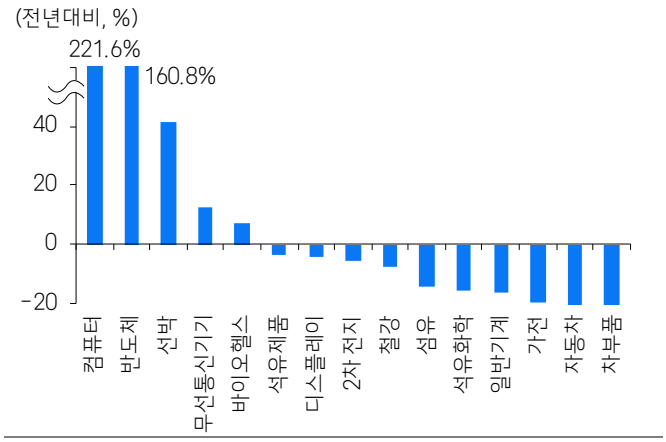
셋째, 지역별 수출에서는 중국(34.1%), 아세안(30.4%), 미국(29.9%) 등 대부분이 양호했다. 다만, 지역별 수출에서도 계절적인 영향과 반도체 수출을 감안한 한국 수출은 대체로 부진한 편이었다. 예를 들어, 중국의 경우 반도체 수출은 141.0%였으나, 석유화학은 -13.0%였다. 미국도 반도체는 341.9%였으나, 자동차는 -30.1%, 일반기계는 -20.9%에 그쳤다.

Compliance Note

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.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경, 대여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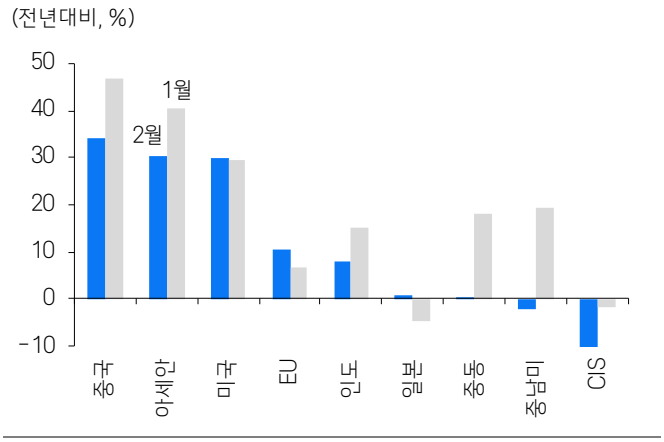
삼성증권

2월 품목별 수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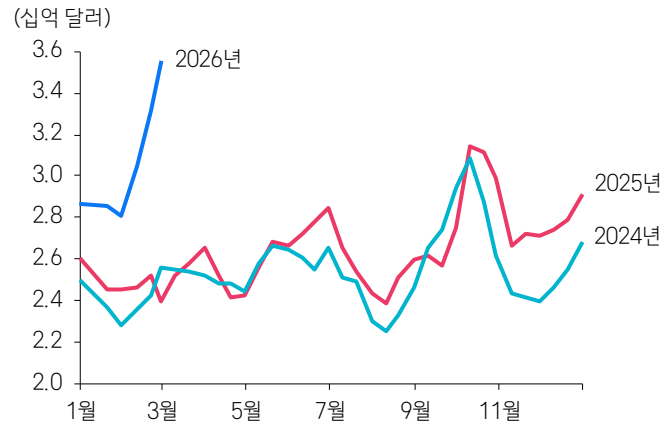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, 삼성증권

2월 지역별 수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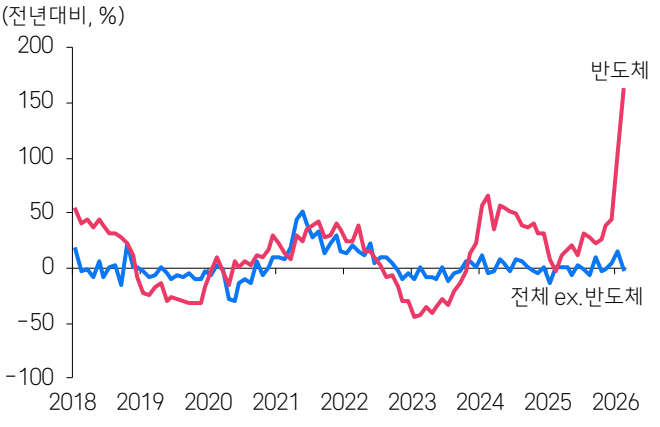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, 삼성증권

일평균 수출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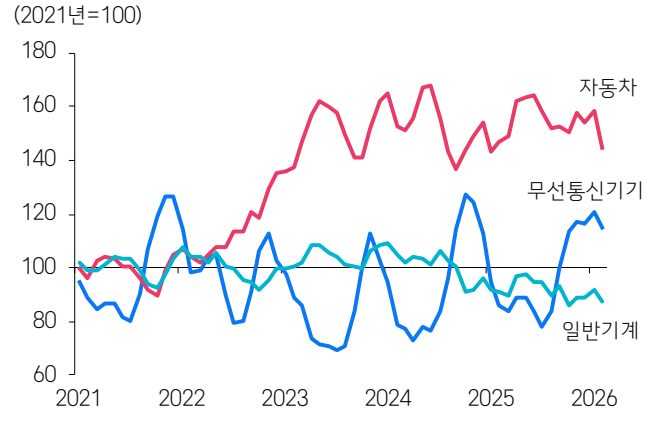
자료: 관세청, 삼성증권

한국 수출은 반도체가 주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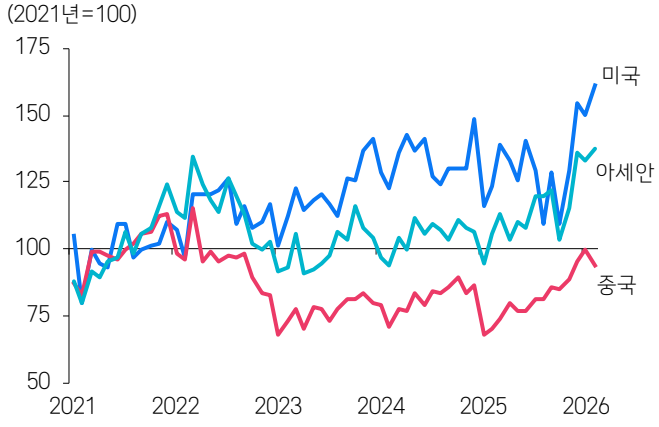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, 삼성증권

반도체 외 주요 품목 수출은 상대적으로 부진



참고: 3개월 이동평균
자료: 산업통산자원부, 삼성증권

주요 지역에 대한 수출은 증가세



자료: 산업통산자원부, 삼성증권

삼성증권

삼성증권주식회사
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(삼성전자빌딩)
Tel: 02 2020 8000 / www.samsungpop.com

삼성증권 Family Center: 1588 2323

고객 불편사항 접수: 080 911 0900

Member of
Dow Jones
Sustainability Indices
Powered by the S&P Global CSA